

국제 특허 전쟁에 뛰어난 촌놈



나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입산리 446번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고향 행정 구역의 이름마저 상촌(上村)과 입산(林山)이니 구태여 두메산골이라고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가장 후미진 곳의 윗동네,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인 산골... 시골 중의 시골이요 벽촌 중의 벽촌인 그 마을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험벗은 생활은 아니었지만 내 유년기는 그다지 풍족하지 못했다.

한때나마 임업과 금광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던 사업가 아버님은 내가 네 살 되던 해 돌아가셨다. 너무 일찍 서둘러 먼길을 떠나셨기 때문에, 막내아들은 당신에 대한 부정(父情)이나 추억을 간직할 여유도 없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어린 3남 1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갑자기 18세 소년 가장이 된 큰형님도 모질고 거센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큰형님은 고향 우체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아버님이 안 계신 집안에서 큰형님은 적은

봉급과 동생들의 학비 때문에 허덕였다. 1997년 12월, 큰형님은 한국통신 조치원 전화국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다. 큰형님의 정년 퇴임식이 있던 날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몸둘 바를 몰랐다. 큰형님의 희생을 딛고 일어섰던 내가 그분의 은혜를 만 분의 일도 갚지 못한 게 그저 죄송할 따름이었다.

졸지에 어린 동생 셋을 식솔로 거느려야 했던 큰형님은 감당키 어려운 청년기를 보내야 했다. 소년 가장으로 20대 시절을 연 큰형님의 자란 고비 정신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근검절약을 생활 신조로 삼고 있다. 결혼 예복으로 맞춘 겨울 코트를 19년 동안 입고 다닌다든지, 1989년식 구형 소나타를 11년째 타는 것도 큰형님의 영향 탓이다. 그 코트와 소나타는 내가 난생 처음 만난 것들이지만 한물 간 중고품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말짱하다. 신혼 여행 때 산 랜드로바 운동화를 19년 동안 신을 수 있었던 것도 큰형님의 청빈한 생활 방식에 감동한 때문이다.

어머니와 큰형님의 회고담에 따르면 아버님은 아이디어 넘치는 발명가였다고 한다. 지식들에게 별미를 맛보게 하려고 당신은 갖가지 창의력을 빚어 가며 참새나 민물 새우(징거미) 등을 부지런히 잡으셨다는 것이다. 설명만 듣고 상상해도 참 멋진 분이셨으리라 생각된다. 참새를 한꺼번에 사로잡는 바지계(발채를 엮은 지계)나 징거미 떼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작은 다래끼(아가리가 작은 바구니) 등은 당신의 훌륭한 발명품들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그토록 빛나는 창의력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탄생시켰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변리사가 된 막내아들이 당신의 발명품들을 특허로 출원 등록했다더라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그런 공상에 젖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 온다. 지금은 고향 앞산에 편히 누워 계시

지만, 당신은 가끔 막내아들에게 달려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고 떠나신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어도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살아있어 변리사아들을 여전히 살찌우고 계신다. 나는 아버님의 번뜩이는 영감과 창의력을 이어가면서 출원인들의 특허를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하곤 한다. 상표의 이름을 지어 주는가 하면 발명의 허술한 점을 발견한 뒤 즉시 보완하도록 주문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아버님처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이 마냥 즐겁다.

유년기의 추억 속에서 가물가물한 아버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나는 병석에 누워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은 병원 신세를 지느라 학교에 거의 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막내아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큰형님이 뛰어다니던 덕분에 간신히 턱걸이로 2학년이 될 수 있었다.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 나는 난생 처음 시험이라는 걸 치렀다. 선생님은 붉은 색연필로 채점한 시험지를 내밀었다. 15점이었다. 대단한 점수라고 생각했던 나는 너무도 자랑스러워 시험지를 펴 들고 집으로 달렸다. 땀 박질하던 길목에서 마침 셋째 할아버지를 만났다. 시험 성적을 자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할아버지, 저 15점 받았어요!”

시험지를 내밀면서 나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오냐! 아주 잘 했구나.”

병약한 손자가 밝은 모습을 보이자 셋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할아버지의 칭찬에 더욱 신이 났던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대신 눈가에 눈물

을 내비쳤다. 그제서야 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그날부터 시험 공포증이 생겼고 그 증세는 차츰 심해졌다. 등사 잉크 냄새를 물씬 풍기며 눈앞에 펼쳐지던 시험지는 언제나 무서웠다. 시험지의 수많은 그빈칸은 내게 엄청난 압박감을 안겨 주었다. 무엇보다도 숨이 턱 막혀 괴로웠다. 시험지를 받아 들면 배가 아프다고 소리부터 질렀다.

“선생님, 배가 아파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시험만은 치르자.”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결국 선생님은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니, 병치레에 시달리던 어린 제자가 불쌍해 선생님이 일부러 속아 준 것이리라.

억지스러운 거짓말과 연극은 내 배를 한층 아프게 만들었다. 얼마 뒤 이 엄살마저 통하지 않자 별 수 없이 공부를 시작했다. 그 이듬해 초였던가. 막내아들이 우등 상장을 받아 오자 어머니는 또 소리 없이 우셨다. 15점짜리 촌놈이 100점을 맞았으니 당신은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아버지바지 헛바지.”

아이들은 나와 마주칠 때마다 놀리기 일쑤였다. 학교에 들어가면 아무도 한복을 입지 않던 그 시절, 나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 주신 한복 바지저고리를 자랑스레 입고 뛰어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만든 한복은 일류 의상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 이상으로 독특한 맵시와 멋을 자아냈던 작품으로서 의장 등록 대상이었다. 그만큼 아이들의 놀림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배어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낙제를 면하고 우등생이 되긴 했지만 꼴찌 촌놈이긴 매한가지였다. 동구밖 개울가는 해가 지도록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은 곳이었다. 뽕나무 가지로 만든 활을 쏘며 놀다가 싫증이 나면 개울가에 털퍼덕 주저앉

았다. 맑은 물 속을 들여다보면서 손뼉을 치면 질서 정연하게 춤추는 송사리 떼가 신기하기만 했다. 고무신을 벗고 뛰어들면 손바닥만한 붕어와 엄지손가락 길이의 미꾸라지들이 손에 잡히곤 했다.

나이가 들면서 꼴찌 촌놈은 더 넓은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고 공부하는 재미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15점을 받던 꼴찌 아들이 마침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두메 산골 출신 촌놈이 대학 4년을 장학생으로 마치고 특히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도 어머니는 철부지 막내아들을 믿지 못해 속을 태우셨다.

어느새 꼴찌 촌놈은 '세계적인 꼴찌'로 변해 있었다.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혹은 지식 소유권 법률 서비스 세일즈를 위해 세계를 누비기 시작했다. 룩셈부르크, 도쿄·홍콩·피닉스·내시빌·올랜드·시카고·IA·뉴욕·파리·런던·베를린·본·퀵른·로마·빈·부다페스트·마드리드·칸느·알리칸테·취리히·바젤·리스본·샌안토니오 등이 꼴찌의 무대로 떠올랐다.

“꼴찌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직업이 바로 지식 재산권 전문가”라고 나는 항상 강조한다. 내가 국제 특허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꼴찌 촌놈 특유의 배짱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자랐던 가난한 고향 마을은 이 못난 꼴찌에게 유연성과 창의성을 심어 준 토양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